

## - 사생결단 기도회 열다섯 번째 - 광야훈련의 길로 인도 하시는 성령님

- 1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 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 6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8:1-6)

사람은 반드시 광야 훈련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릇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연장처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기능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하여, 우리라는 존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1. 첫 번째 광야는, 출애굽 후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전, 광야시간, 즉 광야훈련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 두 번째 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여서 기어이 가야만 했던 길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 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 1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 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 4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 5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민수기 13:32-14:5)
- 10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민수기 14:10)

3.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광야” 밖에 없었습니다.

- A.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 B.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의 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 C.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삶을 끝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 8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 9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 10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 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 12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8-12)

#### 4.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 A.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일한** 길이며
- B.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 C.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고 **순종**하여
- D.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서
- E.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며
- F.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며
- G. “나”라는 존재가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유일한 길이며
- H.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 I.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절하는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A.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 B. 감당할 길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 C.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은, 육신적 기준으로 이해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곳입니다.
- D. 결국, 환경적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은, 약속의 땅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길입니다.

광야란 말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MIDBAAR)" 이고 미드바르의 동사형은 “다바르(DABAAR)”이다. 그런데 다바르란 동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청종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이다. 광야에서는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도 즐길 것도 아무 것도 없기에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이다. 그러기에 광야에서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다.

그리고 “광야, 미드바르” 에서 나온 말로 “드바르(DBAAR)”란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 지성소(至聖所)를 일컫는다. 성막(聖幕)에 나오는 지성소이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모시고 살았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다. 그런 성막의 가장 중심에 지성소가 위치한다. 그래서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뜻인 다바르와 지성소를 뜻하는 드바르가 모두 한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 김진홍 목사의 아침편지

- 1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 2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1-2)
  -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